

국산 도라지 '인지능 개선 효과' 과학적 입증

실험동물에 도라지 추출물 투여 결과, 치매 원인 물질 축적 50%까지 줄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산 도라지의 인지는 개선 효과를 밝힌 연구가 이달 국제 학술지 2곳에 연달아 실렸다고 밝혔다.

도라지는 조롱박과(科) 여러해살이 풀로 주로 나물이나 청으로 만들어 먹는다. 한방에서는 가래와 기침 증상을 개선하는 한약재(길경)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4.83톤(2022년 기준)이 생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약재와 식품으로 쓰이는 국산 도라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우리 특용작물을 이용한 국민 건강 증진 방안을 찾자 인지는 개선 관련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세포실험 결과, 도라지 추출물은 염증을 유도한 동물 신경세포의 산화질소를 약 30~60%까지 감소시켰다. 신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산 도라지의 인지는 개선 효과를 밝힌 연구가 이달 국제 학술지 2곳에 연달아 실렸다고 밝혔다.

경세포 스스로 죽는 현상(apoptosis)을 억제함으로써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연구진이 세포에 이어 단기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동물에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학습 능력은 정상적인 수준까지 유의적으로 회복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동물에서는 알

츠하이머병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약 50%까지 감소했다.

도라지 추출물이 뇌의 산화스트레스와 신경 염증을 연결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세포 외부 물질을 섭취하는 '식세포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베타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킨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연구는 학계에 보고된 도라지의 인지는 개선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베타아밀로이드 감소 원리 등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치매는 발병 후 관리 못지않게 예방 차원의 관리도 중요하다"라며 "국산 약용작물을 활용한 인지는 개선 소재 개발은 국민 건강 증진 사회적 비용 절감 국내 농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영일)은 26일 전주기전여고(교장 한희영)에서 쌀소비 촉진 일환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농협,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주기전여고 찾아 더위에 지친 학생들의 든든한 하루 응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영일)은 26일 전주기전여고 교장 한희영)에서 쌀소비촉진 일환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일 전북농협총괄본부장 박병철 농협 노조위원장, 한희영 기전여고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쌀로 만든 삼각김밥과 생수 각 800여개를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농협은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값이 폭락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범 농협 차원의 전사적인 소비촉진 운

동 일환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영일 총괄본부장은 "청소년들의 집중력 향상과 두뇌활동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아침밥 먹기가 필수다"라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도민 매일 아침밥 먹기 운동 실천과 탄수화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옥기기자

전북은행, 마이데이터 '자산잇Go 커피받Go'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썩뱅크 고객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벤트인 '자산잇Go 커피받Go'를 오는 9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전북은행 썩뱅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흩어져 있는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통합하여 관리해 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마이데이터 금융 자산을 연결한 고객들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전북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정보의 수집·조회를 넘어 관리·비교분석까지 제공하는 종합금융관리 서비스로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또래 그룹과 소비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또래 소비분석'과 매월 반복되는 생활 지출 내용을 관리하는 '정기 지출 서비스'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소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달 출시한 '썩 BIT'는 카드 사용유형을 MBTI(성격유형검사)형식으로 분석해 기존의 성격유형검사인 MBTI처럼 4개 성격유형을 기준으로 16가지 소비유형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고객들의 소비유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마이데이터 가입 및 이용은 전북은행 썩뱅크 '자산'에서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 내년 국가 예산 확대 건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국가 예산 10조원 반영 건의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23일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한 국회의원-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대한·서울상의 부회장단,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및 전문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은 간담회에서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의 해로 열망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국가 예산은 9조 168억원으로 2023년 9조 1,598억원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는 9개 광역도 중 유일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 챔버리 사태와 관련하여 새만금 관련 예산 대폭 축소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등 동

북아의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새만금 개발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낙후는 지속될 것이며, 한밤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낙후지역 전북의 발전을 위해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바 있다"면서 "내년 2025년 국가 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요구한 내년도 국가 예산인 10조원 이상을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제2회 'JB희망의 아우름 멘토링'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제2회 'JB희망의 아우름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자립 준비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정서지원, 금융교육 지원,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하도록 돕고 있으며, 정서 지원 프로그램 하나로 이번 멘토링을 마련했다.

지난 24일 전북은행 본점 17층 스마트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립지원전담기관 전속영 관장 자립 준비 청년 30명, JB금융그룹 씨앗 봉사단 소속 전북은행 직원 10명 등 4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플라워 클래스 프로그램 통해 자립 준비 청년과 씨앗 봉사단원들이 꽃꽂이를 함께 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두 번째 멘토링



활동을 통해 청년들과 더욱 가까워지며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멘토링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용기를 갖고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에너지공단 전북, 사회취약시설 태양광 안전 정밀진단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태연)는 지난 23일 전주덕진노인복지관의 노후된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효율 개선 및 안전진단 등 '신재생 E-케어'를 실시했다.

신재생 E-케어는 사회취약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효율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과 합동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설치된 사회취약시설의 노후 태양광 설비를 점검하는 활동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북지역본부는 지역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신재생 E-케어 ESG 협의체' 구성을 하여 전주, 군산, 익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14개소 노후 태양광 설비에 대해 열화상 드론 등을 활용한 기술진단을 통한 설비의 효율 향상과 안전 점검 등으로 설비 수명을 연장시켜왔다. '신재생 E-케어 ESG 협의체'는 (주)대경산업, 유한회사 네온, (주)원익에너지, (주)에디엔지, (주)다전에너지, 유한회사 우경에너지, 미래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 한국그린에너지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김옥기기자



특히 신재생 E-케어 사업의 마지막 진단 대상인 전주덕진노인복지관의 경우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모듈 파손 여부 및 핫 스팟(Hot spot) 여부를 점검하여 효율뿐만 아니라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 등 사전 예방활동을 함께 실시하였다.

또 해당 기관시설의 에너지사용 대비에 대한 안전상태 등 안전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 에너지 요금 절감 위한 에너지 사용량 컨설팅 등을 실시 후 안전관리 책임자와의 면담으로 점검 결과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Hot spot은 내부결함이 생겨 출력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국소적으로 태양광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김옥기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